



The 14th World Congress of the OWHC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10.31^{TUE} - 11.03^{FRI} 2017
Gyeongju, Republic of Korea

Heritage and Communities:
Tools to engage local communities



2017년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대한민국, 경주

세계유산협약

유네스코 총회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192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7년 현재 총 1,073점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등재 기준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뉘지며, 그 중 문화유산은 유산으로서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인사말

경주 시장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총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경주는 992년 동안 고대왕조 신라의 수도였으며,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를 이루었던 찬란한 고대 한국문화의 뿌리로 여겨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3점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경주는 도시환경과 역사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산이 조화롭게 공존해온 도시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답을 갈구하는 많은 세계유산도시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경주에 머무시는 동안 경주와 대한민국을 마음 속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사교 프로그램을 총회의 부대행사로 마련했습니다.

경주에서 여러분 모두를 맞이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양 식

대한민국 경주 시장

GYEONGJU is *Korea*

인사말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회장

2년에 한 번 회원국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는 세계유산도시기구 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제14차 세계총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세계유산도시기구는 2020년 OWHC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과 발전(Heritage and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이 계획안은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관련 도시들은 유산 관리를 위해 조직된 국제 공동체를 통해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유산과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학술 프로그램의 중심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유산을 관람하는 이들이 아닌 유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세계총회가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번 총회가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증거이자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역동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는 문화와 유산이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경주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아 태지역에 더 없이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경주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도움을 주신 파트너들과 학술위원회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라드 콜롱

프랑스 내무부 장관 겸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회장

인사말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는 세계유산도시기구(OWHC)가 오랫동안 인연이 없었던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주시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유산과 공동체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이번 세계총회의 주제는 지난 세 번의 세계총회의 여러 주제를 아우른 결과물입니다. OWHC는 지난 6년간 특별히 회원 도시 주민들의 능동적인 삶에 주목해 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영향,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미래의 과제와 위협에 대비한 적응 등에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2017년에는 도시 생활의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세계유산도시의 현대적 도시상(都市像)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유치해 주신 경주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총회 조직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세계총회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스 리카르드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

The 14th
World Congress of the
OWHC
2017 Gyeongju, Republic of Korea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유구한 세월 동안 도시와 함께 해 온 세계유산은 단순히 오래된 공간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유산은, 앞으로도 도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유산도시는 무력충돌과 전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무분별한 도시화 및 지나친 상업화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3년 9월 8일 모로코의 페스(Fez)에서 출범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간의 협의체로 현재 약 310여 도시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WHC의 본부는 1991년 7월 제1회 <세계유산도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f World Heritage Cities)>이 열렸던 퀘벡 시에 있으며, 각 지역의 회원 도시와 본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여덟 곳의 지역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주된 목표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환과 협력을 장려하며, 회원 도시 간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OWHC는 세계총회와 지역사무처별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역사 도시의 보전·개발과 관련한 관리 및 전략 분야의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

세계유산도시기구의 사명

세계유산도시기구(OWHC)는 국제 비영리 및 비정부 기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에 따른 세부 요건을 제시하여 회원 도시가 문화유산의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OWHC는 기구의 정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과 <역사 도시 보호를 위한 국제 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Cities)>의 이행에 기여한다.
- 지역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 곳곳의 세계유산도시들이 정보와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도시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한다.
- 관련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전공자나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현지 관리 당국의 필요 사이의 연계 활동을 촉진한다.
-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문화유산과 공동체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

세계유산을 1차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문화유산을 관리, 전시, 진흥하는 활동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항상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에 소재한 문화유산이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가 선정되는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 글로벌 보고서(UNESCO Global Report) 『문화: 도시의 미래』와 『새로운 도시 어젠다(New Urban Agenda)』 등의 문서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세계유산과 세계유산을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도시 문화유산을 규정하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가 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세계유산도시로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OWHC는 여러 날 동안 학술프로그램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시장,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 현지 문화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위원회가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학술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지역사회의 참여’ 부문에서 가치가 입증된 방법들과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OWHC의 회원도시들이 각 도시에서 실행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시장, 혹은 도시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단 워크숍(Mayor’s Workshop)입니다. 시장 워크숍은 OWHC 학술의 날(Scientific Day)과 연계하여 개최되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UNESCO Label)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언론인 워크숍, 잠정목록에 등재 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 워크숍, 청소년 포럼, 청년포럼,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세션 등 다채로운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요소를 갖춘 프로젝트에 장 폴 랄리에(Jean- Paul-L’Allier)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주요일정

2017년 10월 30일(월)		
14:00 -		등록
19:00 - 22:00		참석자 칙테일 리셉션
2017년 10월 31일(화)		
종일		등록
13:00 - 15:00		시내 투어
17:00 - 19:00		개회식
19:00 - 21:00		환영만찬
2017년 11월 01일(수)		
세계총회 학술의 날 좌장: 리처드 맥카이 교수		
오전		
08:30 - 09:00		등록
09:00 - 09:20		기조연설 연사: 마이클 터너 교수
09:20 - 09:35		논의점 및 당일의 목표 발표
09:35 - 10:35		세션 1: 도시 문화유산의 진흥 및 가치 부여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연사: OWHC 회원 도시
10:35 - 11:35		세션 2: 도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연사: OWHC 회원 도시
11:35 - 11:55		커피 브레이크
오후		
11:55 - 12:55		세션 3: 도시 문화유산 관련 공공 정책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연사: OWHC 회원 도시
12:55 - 14:30		중식
14:30 - 15:30		세션 4: 도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지원 연사: OWHC 회원 도시
15:30 - 16:30		세션 5: OWHC의 지역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연사: 지역 사무처
16:30 - 17:00		커피 브레이크
17:00 - 18:00		종합토론 권고안 작성 장 폴 랄리에 관련 영상 상영
저녁		
18:00 - 18:30		장 폴 랄리에 상 수상자 발표
19:00 - 22:00		만찬/문화 행사

2017년 11월 02일(목)		
오전		
09:00 - 10:30		이사도시 후보 발표 2019년 개최 도시 후보지 발표 선거 관리인단 발표
10:30 - 11:00		커피 브레이크
11:00 - 11:45		장 폴 랄리에 상 수상 프로젝트 발표 영상 공모전 우승자 발표 영상 상영
11:45 - 12:30		OWHC 활동 소개
오후		
12:30 - 14:00		중식
14:00 - 17:00		지역 회의
17:00 - 17:30		이사도시 표결/커피 브레이크
17:30 - 18:15		전체회의 - 2019년 세계총회 주제 토론 및 제안
저녁		
19:00 - 22:00		만찬/문화 행사 선출 이사도시 발표 OWHC 이사회장 후보 발표

2017년 11월 03일(금)		
오전		
09:00 - 09:20		OWHC 이사회장 후보자의 견해 발표
09:30 - 12:30		시장단 워크숍 참석자를 위한 특별 세션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
오후		
12:30 - 14:00		중식
14:00 - 14:30		OWHC 이사회장 및 개최 도시 표결
14:30 - 18:30		총회 전문가 현장 답사 (Experts' Site Visit)
저녁		
19:00 - 22:00		폐회식 - 폐막만찬/문화 행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문화유산 보유 도시를 위한 역량 구축 워크숍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사무처(OWHC-AP)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는 잠정목록 등재 문화유산 보유 도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유네스코 잠정목록이란 각 회원국이 등재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예비목록을 뜻합니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인류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OWHC의 회원도시가 될 도시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세계 곳곳의 폭넓은 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헤리티지 특별세션 : 첨단기술과 문화유산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전 세계와 국내의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문서화, 아카이빙, 표현(representation), 보전 분야의 혁신적 성과물과 연구 프로젝트, 응용 사례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OWHC 유스포럼

경주시와 OWHC 아태지역 사무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OWHC 청년 전문가 포럼은 『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을 주제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청년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OWH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대행사

한국 OWHC 청소년 연합회(KOSA) 포럼

OWHC 청소년 연합회는 한국 내 회원 도시의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각 동아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라는 사명 아래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 포럼은 청소년들에게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OWHC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OWHC가 능동적이고 활기차며 젊은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OWH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워크숍

언론인 워크숍은 이번 세계총회 주제에 미디어를 포함하고, 학제 간 연구 분야로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세계문화유산의 개념, 윤리, 콘텐츠, 다양한 전공자가 개발한 방법 등을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화행사

| 개막식 |

아름다운 월정교의 가을 밤, 자연과 어우러지는 야외무대에서 세계총회의 시작을 시민과 함께 열어갑니다. 월정교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 오는 곳으로, 이를 테마로 엮은 역동적이고도 서정적인 미디어 파사드쇼가 월정교를 배경으로 화려하고 장엄하게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전통과 현대,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인상적인 추억을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정교



박정현



국기원



신라고취대

|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전시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놀라움과 흥미로움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 특별전시가 총회 기간 동안 개최됩니다. 홀로그램 유산 전시, 가보지 않아도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유산 - 개성의 만월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콘텐츠와 더불어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기술력으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게임 “화랑”, 3D 영상 상영관 등 어린이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선물할 것입니다.



|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 홍보관 |

이번 세계총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의 회원도시들의 다양한 매력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회원도시 홍보관이 하이코 전시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내에는 국제 문화재 보존기술 전시 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홍보관 내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는 아태지역의 전통 예술 공연단의 특별초청 공연이 펼쳐집니다. 홍보관은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효과적인 도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도시 홍보부스는 세계총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태지역 전통 예술단 초청 공연 |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초로 유치한 세계총회의 기쁨을 아태지역 회원도시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인 아태지역 전통 예술단 초청 공연을 총회 기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찬 문화공연, 홍보관 특설무대 공연, 야외 게릴라 공연 등 총회 기간 곳곳에서 아태지역의 매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소

3F

- 학술회의
- OWHC 사업보고
- 오만찬 행사
- 시장단 총회
- OWHC 이사회장 및 차기총회 개최지 선거
- 폐막식

2F

- 시장단 워크숍
- 지역사무처별 회의
- 신라학국제학술대회

1F

- 회원도시 홍보관 / 아태공연 특설무대
- 디지털헤리티지 특별세션 및 특별전시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도시 워크숍



월정교

- 개막식/미디어아트쇼



황룡원

- 칵테일 리셉션
- OWHC 유스포럼



켄싱턴리조트

- 한국 OWHC 청소년 연합회(KOSA) 포럼



힐튼호텔

- OWHC 이사회의
- 전문가 워크숍

발제자

기조 연사



마이클 터너

마이클 터너 교수는 도시 설계 및 보존학 분야의 유네스코 석좌교수이며 예루살렘 베자렐 예술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연구혁신단(Research and Innovation Authority)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1983년부터는 개인 사무소에서 건축과 보존, 도시 계획과 관련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도시 지속가능성, 문화유산,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도시 공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 학술기구의 회원인 터너 교수는 유네스코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유산센터 소장 특사 자격으로 문화 발전(Culture for Development) 및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Historic Urban Landscapes)>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

좌장



리처드 맥카이

리처드 맥카이 교수는 Mackay Strategic의 창립자 겸 운영자이다. 그는 호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컨설팅 업체인 GML Heritage Pty Ltd의 공동 창업자였으며, 최근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션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문화 고문을 역임했다. 호주 세계유산 자문위원회 및 블루마운틴 산악지대 세계자연유산지역 자문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이코모스의 세계유산 심사위원으로 “한국의 서원” 등의 실사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다.

시장단 워크숍



에일린 올바쉴리

독립 컨설턴트인 에일린 올바쉴리 박사는 15년 넘게 영국과 전 세계를 돌며 역사적 건물 및 지역과 협업하고 전문가적 식견을 제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에일린 박사는 건축가 양성 교육을 받은 뒤 보존 및 유산 관리를 연구해 왔다.

『건축물 보존(Architectural Conservation)』(2008)을 집필한 뒤로 재건축과 급속한 도시 발전의 맥락에서의 진정성(authenticity), 문화유산 및 재생의 소관(所管) 확대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나 페레이라 로더스



아나 페레이라 로더스 박사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의 유산 및 지속가능성 학과 조교수이다. 아나 박사는 건축, 도시 계획, 법률, 환경 관리,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학제 간 협력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폭넓은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저널(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Emerald)』의 창업자 겸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다.

아나 박사는 현재 세계유산도시를 관리하는 현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을지를 회원 도시들과 공동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동반자 프로그램



양동마을

일자	시간	프로그램
10/31 (화)	9:30	호텔 출발
	10:00~12:00	불국사, 석굴암 답사
	12:00~13:00	중식
	13:00~15:00	스파 및 찜질방 체험
	15:00~16:30	숙소이동 및 휴식
	17:00~21:00	개회식 및 환영만찬
11/1 (수)	9:30	호텔 출발
	10:00~12:00	경주역사유적지구 답사 대릉원 ▶ 첨성대 ▶ 교촌마을
	12:00~13:00	중식
	13:00~15:00	전통놀이 체험 및 한복체험
	16:00~17:00	숙소이동 및 휴식
11/2 (목)	9:30	호텔 출발
	10:00~12:00	한국 전통 민화 일일 체험 수업
	12:00~13:00	중식
	13:00~14:30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답사
	15:00~17:00	골굴사 답사
	17:00~18:00	숙소이동 및 휴식
11/3 (금)	9:30	호텔 출발
	10:00~12:00	양동마을 답사
	12:00~13:30	김치 만들기 체험
	13:30~14:30	중식(김치를 테마로 한 식사)
	14:30~17:00	세계총회 참관(디지털헤리티지, 홍보관)
	17:00~18:30	숙소이동 및 휴식
	19:00~21:00	폐회식 및 환송만찬

황금의 나라 신라

“... 신라는 중국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인은 노아의 아들 야벳(Japhet), 야벳의 아들 아무르(Amur)의 후손들이다... 신라는 금이 매우 많이 나는 나라이다. 신라에 건너갔다가 온화한 환경에 매료된 이슬람인들은 대부분 이곳에 평생 머무르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 Kibn Khurdadhbih, Kibn Khurdadhbih, Kit b al-Mas lik w'al- Mam lik (The Book of Roads and Kingdoms), 845 AD -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조금 늦은 6세기에 나라가 발전했다. 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토대로 영토를 확장해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까지 정복했다.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며 고대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진흥왕 때 세력의 정점을 찍는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다. 신라는 고대 세계에서 황금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찬란하고 화려한 왕관과 장신구, 불상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자동차나 기차 같은 현대식 교통수단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도, 경주는 오랜 기간 해로와 육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 기록된 문헌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상업과 문화를 통해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며, 경주시내 왕릉 및 고고학적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불교와 유교, 도교, 심지어는 머나먼 중동의 문화 까지도 아우른 출토품이 다수 발견된다.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신라의 수도 경주

신라의 수도 경주는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신라의 지배층은 경주에 여러 공공건물과 궁궐, 사찰, 성채 등을 축조하였고, 지배층의 무덤이 경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 7세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대승불교가 한반도로 전파되었는데, 신라는 이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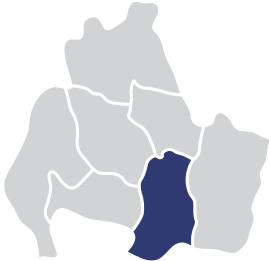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현대적인 도시 지역과 역사적인 고대 수도의 거리 형태가 중첩되어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드러낸다. 경주는 중국으로부터 방리(坊里) 제도를 받아들여 발전시킴으로써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세련된 도시를 계획했으며, 경주 일대의 산에서 뻗어나가는 도성은 신라 시대 수도로서의 특별한 도시 풍경을 보여준다.

경주는 신라의 국가적 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여 통일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제49대 헌강왕(憲康王)대에는 도성(都城) 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고 밥을 짓는 데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솥을 썼으며, 집의 처마와 담들이 이웃과 서로 붙어 있으며, 노래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묘사되고 있다. 『삼국유사』 제1권 기이편(紀異篇) 진한조(辰韓條)에 “신라의 전성시대에 수도인 경주에는 17만 8,936호(戶)가 살았고, 행정 구역은 1,360방(坊), 55리(里)로 나뉘었으며, 금입택이 35채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9채가 기록되었다. 신라의 전성시대란 삼국통일 이후 약 100여 년 간인 중대(654~780)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성시대는 경주가 수도로서 가장 번성했던 신라 말기, 즉 헌강왕 때이다.

세계유산도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이다. 두 유산은 모두 경주시 동남쪽의 토함산(吐含山)에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두 유산은 8세기 후반에 같은 인물이 계획해 조영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로 원형의 주실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을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두 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석굴암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본사인 불국사(佛國寺)의 부속암자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였다. 통일신라시대에 경주 토함산(吐含山)에 세워진 한국의 대표적인 석굴사찰이다. 신라인들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미, 성숙한 조각기법 등을 보여주는 역사 유적으로 국보 제24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인공 동굴로, 전실과 복도, 돔 형태의 주실로 이루어져 있다. 석굴암 내부에 안치된 본존불상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왼손은 집주를 의미하는 선정인 형태를 하고 있고, 오른손은 땅에 손을 대는 향마촉지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 동굴 벽에 고부조와 저부조로 조각된 범천상, 보살상, 제자상을 비롯해 석굴암의 조각상은 동아시아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돔 형태의 주실 천장과 진입 복도에는 360여 개의 석판을 이용한 혁신적 건축 기법이 적용되었다.



불국사

불국사는 돌단을 높이 올리고 그 위에 목조 건물을 잇달아 배치한 불교 사찰이다. 불국사 경내는 비로전과 대웅전, 극락전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세 구역과 돌단은 불국토를 표현하고 있다. 돌단과 다리, 그리고 대웅전을 향하고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은 신라 시대의 섬세한 석공 기술을 보여 준다.



World Heritage City Gyeongju



항룡사지구

항룡사지구에는 분황사와 항룡사지, 2곳의 불교 사찰이 있다. 진흥왕(서기 540년-576년)의 명령으로 축조된 항룡사는 약 7만 2,500㎡의 대지 위에 세워진 한국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 서기 645년에 높이 80m의 9층탑이 추가되었다. 분황사의 탑은 서기 634년에 돌을 다듬어 만든 벽돌을 이용해 축조되었다.



산성지구

산성지구에는 동해안을 따라 전략 지점에 방어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명활산성도 산성지구에 위치해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절정을 이룬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조각, 부조, 탑, 사찰 및 왕궁 유적 등의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는 약 1,000년(기원전 57년-서기 935년) 동안 신라 왕조의 통치 하에 있었는데, 경주와 그 일대의 기념물과 유산들은 신라의 문화적 업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경주 중심부와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섯 곳의 지역으로 구성된다.



남산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조각, 탑, 사지, 궁궐지, 왕릉, 산성을 비롯해 신라 시대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의 유적이 많으며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신라의 1,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의 생활 문화와 예술 감각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경주 역사 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궁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항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월성지구

월성지구에는 월성의 왕궁터, 경주 김 씨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의 계림, 임해전지에 위치한 월지와 첨성대 등의 기념물이 있다.



대릉원지구

대릉원지구는 3곳의 왕실 고분군으로 구성된다. 고분은 대부분 돔 형태이지만 일부는 반달 모양이나 조롱박 모양을 하고 있다. 고분에는 자갈로 덮인 이중 목관이 안치되어 있고, 발굴 결과 금과 유리, 파인세라믹스 같은 부장품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초기의 고분 중 한 곳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날개 달린 말을 그려 넣은 천마도가 발굴되었다.

양동마을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조성된 양동마을은 한국의 역사적인 씨족 마을 중 한 곳이다.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넓은 농경지와 강이 내려다보는 배산임수의 배치를 통해, 조선시대(1392년-1910년) 초기 양반의 독특한 유교 문화를 보여 준다. 양동마을은 주변 경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종가의 가옥이 남아 있으며, 다른 씨족 구성원의 목조 가옥도 상당수 존재한다. 아울러 정자와 서당, 서원, 그리고 과거에 서민들이 살았던 1층 초가집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정자나 휴식 공간에서 바라본 마을 주변의 산과 나무, 물의 풍경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17세기와 18세기 시인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백국제컨벤션센터(HICO)

센터의 명칭은 신라시대 합좌 제도인 ‘화백(和白)’에서 유래하였다. 화백은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체 회의 기구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여 논의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회합’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회의 문화이다. 유구한 소통의 정신을 간직한 하이코는 시대의 필요에 걸맞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전시 및 컨벤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숙박 정보

하이코에서 호텔 이동 정보



제14차 OWHC 세계총회 숙박 요금

호텔명	힐튼호텔	현대호텔	더케이호텔	발렌타인호텔
				
등급	★★★★★	★★★★★	★★★★★	-
유형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요금	150,000원	135,000원	108,000원	45,000원
유형	트윈	트윈	트윈	트윈
요금	180,000원	160,000원	126,000원	50,000원
조식 포함 금액				호텔 내에 식당 없음



연락처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전 화. 054-779-6919
02-2152-5024
이 메 일. info@2017gyeongjuowhc.org
홈페이지. www.2017gyeongjuowhc.org

등록

세계총회 온라인 참가 등록 : www.2017gyeongjuowhc.org

등록비

등록	등록 기간	등록비
사전 등록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400달러
현장 등록	2017년 11월 01일(수)까지	500달러

※ 동반자 프로그램 요금 동일
※ 교통비(인천공항-신경주역 KTX 요금)는 등록비에 미포함

등록비 포함사항

항목
세션참가
회의자료 및 기념품
오 만찬
커피브레이크 등 간식
개막식 참가
폐막식 참가
기타 문화행사 참가
총회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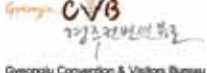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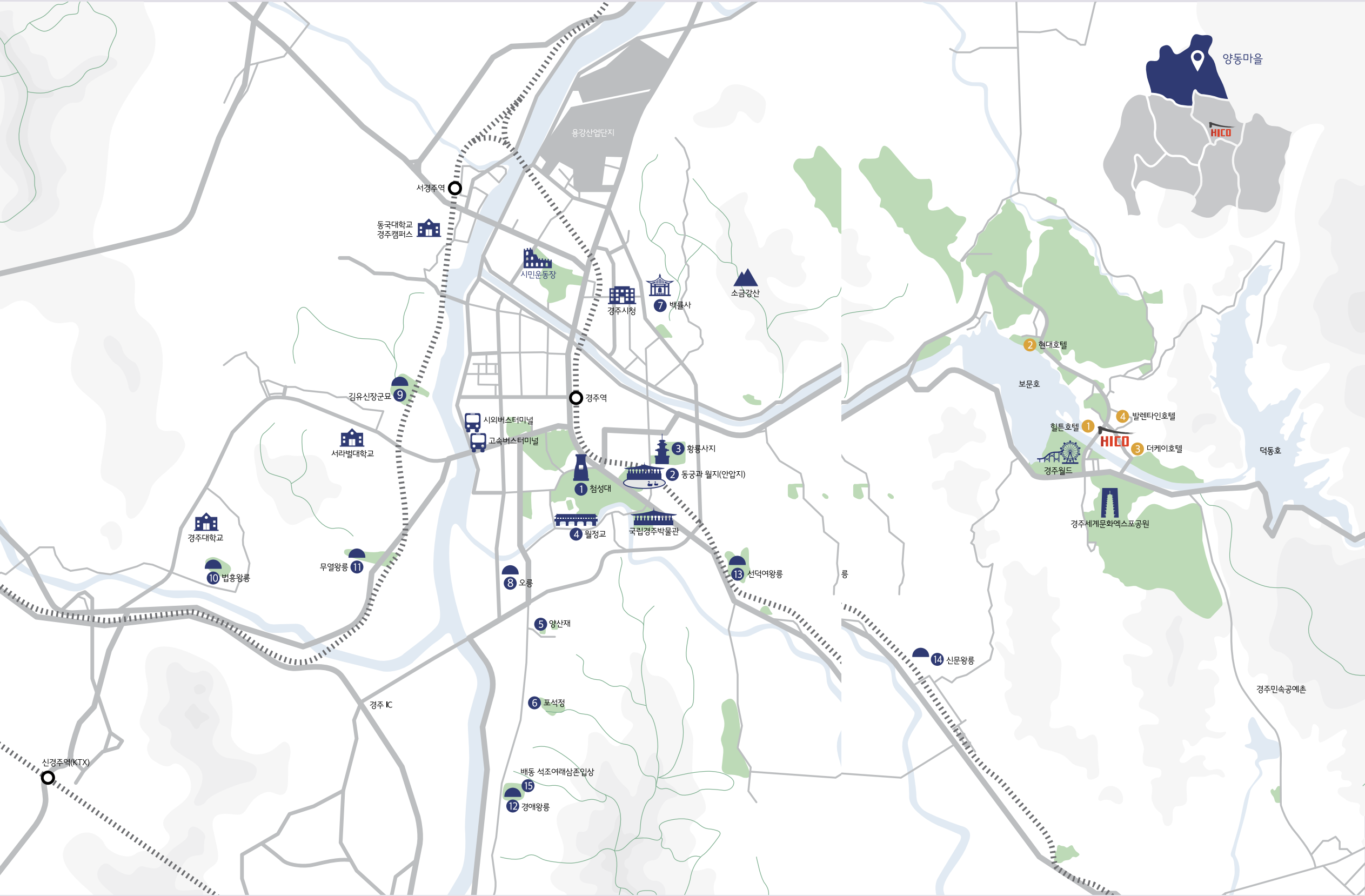
후원



협조



지도



경주,
세계문화유산 도시

- 1. 첨성대
- 2. 동궁과 월지(안압지)
- 3. 황룡사지
- 4. 월정교
- 5. 양산재
- 6. 포석정
- 7. 백률사
- 8. 오름
- 9. 김유신장군묘
- 10. 법흥왕릉
- 11. 무열왕릉
- 12. 경애왕릉
- 13. 선덕여왕릉
- 14. 신문왕릉
- 15.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숙박 시설

- 1. 경주힐튼호텔
- 2. 경주현대호텔
- 3. 경주더케이호텔
- 4. 발렌타인호텔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전 화. 054-779-6919
02-2152-5024
이 메 일. info@2017gyeongjuowhc.org
홈페이지. www.2017gyeongjuowhc.org